

채널A '하트시그널' 서주원의 매력



'2017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출전한 카레이서 서주원이 운전석에서 강렬한 눈빛을 보내고 있다. 그는 3차전에서 시즌 첫 우승을 기록했다.

사진제공 | 서주원

질주본능 서주원 “카레이싱은 마약같은 존재”

채널A '하트시그널' 서 인기남 등극 CJ슈퍼레이스 GT 클래스 우승 경력 꿈 위해 부모님 설득 시킨 열혈남아 “더 큰 무대에서 세계적인 선수 되겠다”

이 시대의 20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난을 헤쳐 나가면서도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맨다. 그런 점에서 확고한 신념으로 제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는 '영건 카레이서' 서주원(23·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은 꽤나 성공적인 20대를 살고 있다. 여기에 창창한 앞날을 기대해볼만한 어린 나이를 최고의 무기로 삼았으니 이제는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 질주할 일만 남았다.

● 준비된 카레이서

2002년 캐나다 유학을 떠났던 서주원은 우연히 접한 F1 경기를 통해 남몰래 카레이서의 꿈을 품었다. 3년간의 타지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드라이빙에 대한 열망을 잠재우지 못한 그는 직접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부모를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서주원은 “A4용지에 '카레이싱이 이만큼 안전하니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걷게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담아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아버지가 6개월을 고민하신 끝에 '네 갈 길은 내가 찾아가라'고 하시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셨다”고 되돌아봤다. 그렇게 서주원은 카레이싱의 가장 이상적인 입문 코스인 카트에 발을 들였다.

승승장구했다. 카트 데뷔 2년 만인 2010년 '코리아 카트 챔피언십' 시즌 종합 챔피언을 차지했고, 2013년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일본 카트 부문 시리즈 챔피언을 달성했다. 기량을 인정받아 2014년엔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팀에 '최연소'



카레이서 서주원

리는 타이틀을 달고 입단했다. 프로 무대에 발을 들인 뒤론 성적을 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남모름 고충도 있었지만, “나에게 카레이싱은 마약과도 같은 존재”라 말하는 그는 묵묵히 본인의 길을 걸어왔다.

종종 컴퓨터 게임을 통해 두뇌 훈련(?)을 하는 서주원은 과연 '젊은피'답다. 그는 “게임을 하면서 항상 전략을 세운다. 이상하게 게임이 잘 되는 달에는 시험도 잘 풀린다. 그만큼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뜻일 거다. 실제 시험을 할 때 순간 판단이 진짜 중요하다”며 미소 지었다. 어쩌면 지난 6월은 서주원의 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달이 아니었을까. 18일 끝난 '2017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ASA GT1 클래스 3차전에서 라이벌 김중겸을 제치고 시즌 첫 우승을 거머쥐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시리즈 챔피언을 꿈꾸는 서주원에게 그 다음해에 등번호 1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여태까지 출생년도를 딴 94번을 달았지만, 챔피언에 오르면 무조건 1번으로 바꿀 거다. 1번이 멋있지 않나”라며 포디엄 제일 높은 자리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해당 클래스에선 같은 팀 선배인 최명길이 1번을 사용하고 있다. 이 친구 참 맹랑하다.

● 위풍당당한 나의 젊음

서킷에서 벗어나 서주원의 일상을 엿보면 그는 호기심 많고, 여행을 좋아하는 영락없는 20대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호기심이 많다”는 그는 특히 의학에 관심이 많아 관련 논문을 찾아 읽어볼 정도로 행동파다. 반대로 설 때 확실히 쓴다. 시험을 치르며 먼 달간의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대회를 마치고 나면 3~4일씩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서주원은 현재 중앙대에서 불어를 전공하고 있다. 그러나 학업에 온전히 열중할 수 없는 상황 탓에 결국 휴학을 선택했다. 학교로 돌아갈 시점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학위를 따야 한다는 의무감은 전혀 없다. “요즘 아무리 학벌 사회라고는 하지만, 또 다른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뺨맞힐 수 있다면 굳이 (학력이란) 간판은 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는 스스로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분명한 소신이 있다.

훈훈한 외모를 지닌 그는 최근 채널A에서 방영하는 '하트시그널'에 출연 중이다. 일반인 남녀가 함께 생활하며 러브라인을 형성하는 이프

로그그램에서 서주원은 가장 어린 나이에도 남자답고 솔직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주변에서 모두들 방송을 재미있게 보고 있다더라. 스포일러를 원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며 웃었다.

●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어

서주원은 카레이서로서 지닌 역량을 최대한 쏟아내기 위해 열일 노력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세다코퍼레이션'의 CEO로서 한 기업을 책임져 키워나가고 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깊은 지식을 활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드라이빙 클래스를 운영하고, 자동차 브랜드 행사 업무를 대행해주는 일을 한다.

그가 단순히 레이싱에만 집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의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는 이유는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다. 카트로 시작해 프론트에 입단한 그는 카레이서로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다. 실제로 그는 틈만 나면 카트를 타는 후배들을 찾아가 응원하곤 한다. 서주원은 “프로에 입단한 뒤부터 후배 양성에 신경을 쓰고 있다. 추후 작은 재단을 만들어서 어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며 “후배들을 계속 키워야지, 우리 세대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주원은 더 큰 무대를 꿈꾸고 있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싶다”는 강한 포부를 밝힌 그의 첫 목표는 아우디 코리아 소속의 유경욱이 활약하고 있는 R8 LMS컵이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닿아있다. 서주원은 “자비를 들여 해외 리그에 출전할 생각은 없다. 내 실력을 보여주고, 후원이사 나타나야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다. 계속 해외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며 스스로를 독려했다.

서대형 기자 seody3062@donga.com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물 실험에 대한 논란도 커졌다. 동물 실험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고, 실험동물의 수를 줄이고,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필요악” vs “인간의 이기” 뜨거운 감자 ‘동물 실험’

“의학·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 동물보호단체 “공유 질병 1%대 불교” 실험 대체방안·규제강화엔 한목소리



최근 동물보호단체와 의학·생물학 분야에서 ‘동물 실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사람을 대신해 살아있는 동물에게 새로운 의약품이나 제품 등을 임상 시험하는 동물 실험은 지난 기원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의학은 물론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기원전 5세기 개의 눈을 해부해 시신경을 발견한 것이 기록상의 동물 실험 시초로 1881년 화학자 루이스 파스퇴르가 양에 탄저균 백신을 접종해 탄저균과 백신 연구에 성과를 이뤘다. 또 1921년에는 밴팅이라는 의학자가 동물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최초로 발견했다.

동물 실험이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면서 일부 사람들은 동물 실험이 필요악이라는 입장이 되었다. 동물 실험 결과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동물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을 찾아 실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측은 사람을 위해 동물이 희생되는 것은 이기적이고 비인도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사람이 가진 질병 3만 가지 가운데 동물과 공유하고 있는 질병은 350여 가지(1.16%)에 불과해 동물 실험의 결과가 사람의 임상 안전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탁치료제 탈리도마이드 약이 동물 실험에 성공했으나 1950년대 후반 영국과 독일 등 중심으로 50여 개국에 판매됐을 때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팔과 다리가 짧은 기형아를 출산하면서 위험성이 드러나 판매가 중지된 사례가 있었다. 또 1976년 일본에서 지시제인 클리오쿠린을 동물 실험을 통해 시중에 판매했으니 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시력을 잃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러 실패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인공 피부 혹은 줄기세포로부터 배양된 작은 생체기관 ‘오르가노이드(Organoid)’를 사용해 화장품이나 약품에 대한 장기 반응을 실험하거나 동물의 반응을 본뜬 컴퓨터 모델링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동물 실험을 완전히 대체할 방안이 아니다. 세포실험의 경우 세포는 세포만의 특성을 유지하는 셀라인(cell line)을 가지고 있어 오차 반응 범위가 작지만 사람과 동물의 경우에는 똑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개체차가 높다. 그러므로 다양한 개체에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많은 개체 수와 반복적인 동물 실험으로 표준화된 수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물 실험 필요 여부와 관련해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실험동물에 대한 복지의 중요성도 화두에 올랐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동물 실험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고(Replacement),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의 수를 줄이고(Reduction),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감소하는(Refinement) ‘3R 동물실험원칙’을 목적으로 실험동물의 복지·윤리적 지침들을 법률을 규정해 동물실험을 규제한다.

이에 국내에서도 실험동물에 대한 복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 실험에 사용된 동물을 국가에서 관리해 입양될 수 있도록 하고 실험동물의 번식 및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희 객원기자

끝나지 않은 한·일 위안부 논란... '귀향'도 계속된다

2편 '언니야 이제 집에 가자' 제작중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논란 속에 스크린에서는 아픈 역사를 겪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지난해 358만 관객 동원에 성공한 '귀향'이 두 번째 편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촬영 내용을 바탕으로 1편에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를 더한 후속편이다.

지난해 2월 손숙, 최리 주연으로 개봉한 '귀향'(제작 제이앤엔터테인먼트)은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이야기를 그려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 국내 흥행에만 머물지 않고 지난해

4월 극장 상영을 마무리한 이후 지금까지 1년2개월 동안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61개 도시에서 1300회 이상 상영된 만큼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14년 간의 준비 끝에 '귀향'을 완성한 조경래 감독은 현재 그 두 번째 이야기인 '언니야 이제 집에 가자' 제작에 한창이다. 영화는 '귀향'에 담아내지 못한 내용을 다시 편집해 또 다른 이야기를 완성하는 시도다. '귀향'에 짧게 등장한 소녀를 새로운 주인공 삼아 그의 눈으로 보는 당대의 아픔과 희망을 그린다.

제작진은 '언니야 이제 집에 가자'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극장 개봉 등 많은 관

객이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동시에 '귀향'이 탄생하기까지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도 한창이다.

영화계 관계자는 29일 "'귀향'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위안부 피해 문제를 꾸준히 담아내려는 제작진의 인내와 노력의 결과"라며 "한국영화에서 흔하지 않은 시도"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귀향'의 흐름은 최근 더욱 거세지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움직임 속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제작진과 출연진은 영화 수익 규모로 얻은 10억원을 생존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시설인 나눔의 집에 기부하기도 했다.

이해리 기자 gott1024@donga.com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로 역사의 아픔을 담은 영화 '귀향'이 후속편으로 관객을 만난다. '언니야 이제 집에 가자'라는 제목으로 올해 제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진은 '귀향'의 한 장면. 사진제공 | 제이앤엔터테인먼트